



실로암 한인 침례 교회

Siloam Korean Baptist Church (SBC)

May 31, 2026, 10:30 a.m.

삼위일체 주일 Trinity Sunday (Year A)



Immanuel Baptist Church

69 Saunders Road, Newport News, VA 23601

담임목사 장선욱 Senior Pastor Sean Chang, 757-867-8676

seanchang78@gmail.com

www.siloamkbc.org

모임 안내 Gatherings

주일 예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Korean/English) 10:30 am
수요 성경 공부 Wednesday Bible Study (Korean) 8:00 pm via Zoom
Zoom Meeting ID: 401 799 0718



www.siloamkbc.org

예배 순서 WORSHIP ORDER

예배 인도자 Presider

I 모이기 Gathering

교회 소식 Life of the Church 인도자 Presider

예배 기도 Invocation..... 인도자 Presider

찬양 Let's Praise!다같이 All Together

H008 거룩 거룩 거룩 Holy, Holy, Holy!

C1163 여호와 우리 주여 Jehovah Our Lord

C1051 가서 제자 삼으라 Go and Make them Disciples

신앙 고백 Affirmation of Fath다같이 All Together

삶을 뒤돌아보기 Time to Reflect다같이 All Together

평화의 나눔 Sharing Peace다같이 All Together

중보 기도 Intercessory Prayers다같이 All Together

주기도문 The Lord's Prayer다같이 All Together

II 말씀 The Word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다같이 All Together

마가복음 Matthew 28:16-20

설교 Sermon.....장선욱 목사 Pastor Sean Chang

삼위일체 The Trinity

III 화답 Response

찬양 Let's Praise!다같이 All Together

C1244 주님께 드려요 Give All to God

헌금 기도 Offering Prayer.....다같이 All Together

IV 파송 Sending

파송 및 축도 Sending Word and Benediction.....장선욱 목사 Pastor Sean Chang

교회 소식 THE LIFE OF THE CHURCH

교회가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시각을 주는 이유

- 정치 개입 politicization
- 대형 교회 스캔들 megachurch scandals
- 공격적인 전도 aggressive proselytizing
- 내부 분열 internal division
- 위선이라는 인식 perceived hypocrisy
- 우파 운동 association with right-wing activism
- 편가르기 식의 언사 exclusivist rhetoric
- 코비드 당시 무책임한 행동 conflicts during COVID-era restrictions

기도 제목 THE PRAYER LIST

- 사도행전 2 장과 같은 교회가 되도록
 - 지역 봉사를 감당하는 교회
 - 보내는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
 -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
- 선교사들을 위하여
 - 조동천 (캄보디아)
 - 이낙원 (케냐) 우리가 지원하는 아이들입니다. Fabian Kamau Eunice Wanjiku Allysa Wambui Sharlin Akai
- 주위에 어려운 일을 당한 분들을 위하여
- 주위에 아픈 분과 돌보시는 분들을 위하여
- 자녀들을 위하여
- 여행하는 분들을 위하여
- 권세자들을 위하여

THE FIRST LESSON 창세기 GENESIS 1:1-2:4

- 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 2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 3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 4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 5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 6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 7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 8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 9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 10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 11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 12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 13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 14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 15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 16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 17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 18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 19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 20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하시고
- 21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 22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 23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 24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 25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 26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 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 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 29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 30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 31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 2:1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 2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 3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 4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시편 PSALM 8

- 1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 2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어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 3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 4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 5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 6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 7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 8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 9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11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이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12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13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본문 함께 살펴보기

고린도후서 13 장 11-13 절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며 전달한 간곡한 권고이자 축복의 기도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내부적인 파벌 싸움, 거짓 교사들의 침투, 그리고 바울의 사도 권위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극심한 갈등과 분열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목회적 위기 속에서 바울은 편지 내내 눈물과 엄중한 경고로 그들의 신앙을 바로잡고자 했으며, 본문은 그 모든 감정과 신학적 권면이 응축된 최종 결론부에 해당합니다.

바울은 서신의 마지막 안부를 전하며 공동체의 영적 회복을 위한 5 가지 구체적인 명령(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라, 위로를 받으라, 마음을 같이하라, 평안할지어다)을 제시합니다. 이 명령들은 단순한 도덕적 훈계가 아니라, 분열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된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붙들어야 할 실제적인 지침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명령들을 따를 때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결부시킴으로써, 공동체의 화평이 인간의 노력만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물임을 분명히 합니다.

마지막 13 절은 신약성경 전체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공동체적 축복의 형태로 명확하게 선포된 가장 대표적인 성구(축도)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고린도 교회의 고질적인 갈등을 치료할 유일한 해법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 및 성도 간의 연결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 축복은 고린도 교회라는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 속에서 깨어진 관계를 치유하고 거룩한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한 성령의 강력한 처방전이었습니다.

말씀 속에 담긴 믿음의 주제들

첫 번째 주제는 '삼위일체적 코이노니아(교통)의 원형'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홀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완벽한 사랑 안에서 상호 연합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선포한 축도는 단순한 예배의 마무리가 아니라, 교회가 도달해야 할 궁극적인 공동체의 모델이 삼위일체의 관계성에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교회의 하나 됨은 인간적인 의기투합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로운 연합 안에 참여할 때만 가능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교회의 온전한 회복과 평화'입니다. 바울은 "온전하게 되며"(strive for full restoration)라는 표현을 통해 교회의 구조와 성도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준에 맞게 재조정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부러진 뼈를 맞추거나 찢어진 그물을 기울 때 사용하는 단어로, 죄와 분열로 어긋난 공동체의 관계를 성령의 손길로 다시 엮어내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화평을 뜻하는 '평안'은 단순히 갈등이 없는 상태를 넘어, 하나님과의 화목이 성도 간의 화목으로 흘러넘치는 상태를 뜻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 '은혜, 사랑, 교통의 역동성'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먼저 언급하는데, 이는 십자가를 통해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사랑은 성령의 '교통하심(koinonia)'을 통해 오늘날 우리의 삶과 공동체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되고 나누어집니다. 성령은 하늘의 사랑과 은혜를 지상에 있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로 운반하시고 서로 소통하게 하시는 역동적인 통로가 되십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 돌아보기

오늘날 우리는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이념적, 세대적, 사회적 분열이 팽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세상의 분열 사조는 교회 안으로까지 침투하여, 성도 간의 반목과 시기, 그리고 공동체의 파편화를 만들어내곤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라고 외친 명령은, 바로 오늘날 나의 교만과 이기심으로 인해 상처 입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향한 성령의 아픈 신음소리로 다가옵니다. 나는 내 곁의 지체들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있는지, 아니면 나만의 기준선으로 선을 긋고 외면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바울이 제시한 "온전하게 됨", 즉 '관계의 재조정' 앞에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쓴 뿌리와 미움, 혹은 과거의 상처로 인해 누군가와와 관계를 방치해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그 찢어진 그물을 그대로 둔 채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답게, 먼저 손을 내밀고 용서하며, 서로를 격려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가는 실제적인 노력이 내 삶에 작동하고 있는지 자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매 주일 예배의 끝자락에서 무심코 듣고 넘겼던 '축도'의 무게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은 단순한 종교적 의식의 마감 신호가 아니라, 세상으로 파송되는 우리를 덮는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이자 삶의 이정표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박으며, 성령의 세밀한 음성에 순종하여 이웃과 소통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복된 삶을 지상에서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함께 나누기 위한 질문들

1.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 속에서 '온전하게 되라(찢어진 그물을 깎다/부러진 뼈를 맞추다)'고 명령합니다. 현재 여러분의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 내에서 성령님의 만지심을 통해 가장 먼저 '기워지고 회복되어야 할 찢어진 관계'는 무엇입니까?
2. 본문에서 약속된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는 말씀은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고 평화할 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최근 공동체 안에서 평화를 깨뜨렸던 나 자신의 말이나 태도가 있었다면 무엇인지 솔직하게 나누고, 평화를 만드는 자(peacemaker)가 되기 위해 무엇을 고쳐야 할지 나누어 봅시다.

3. 축도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중, 현재 나의 메마른 신앙생활에서 가장 갈급하게 채워져야 할 요소는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천을 위한 실행 계획

월요일: (은혜의 발견) 하루 동안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받았던 무조건적인 용서나 배려(은혜)를 3 가지 이상 기억하여 노트에 기록하고, 나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화요일: (사랑의 확장)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묵상한 후, 평소 관계가 소원했거나 대화하기 힘들었던 가족이나 이웃 중 한 명을 택해 조건 없는 친절의 메시지나 작은 선물을 보냅니다.

수요일: (성령의 교통) 공동체 내에서 영적, 육체적, 혹은 감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떠올립니다. 그를 위해 10 분 이상 중보기도를 하고, 따뜻한 안부의 전화를 걸어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목요일: (마음을 같이하기) 내 생각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만날 때, 내 주장을 내세우기 전에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경청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의도적으로 실행합니다. 비판적인 말을 멈추고 축복의 말을 전합니다.

금요일: (평화의 인사) 본문의 '거룩한 입맞춤'을 현대적으로 적용하여, 서운한 감정이 남아있는 지체에게 먼저 다가가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빕니다"라고 진심 어린 화해와 화평의 인사를 건넵니다.

마무리 묵상과 공동의 기도

사랑과 평강의 삼위일체 하나님, 분열과 상처로 가득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 화평과 온전함을 선포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의 심령으로 듣습니다. 독선과 이기심으로 형제를 판단하고 공동체의 평화를 깨뜨렸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날마다 우리 삶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이 우리의 견고한 요새가 되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교통하심이 깨어진 우리의 관계를 잇는 접착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거룩한 주일,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한 몸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삼위일체의 신비한 사랑을 살아내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E GOSPEL MATTHEW 28:16-20

16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17 예수를 뵈옵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18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